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1. 11.(수) / 총 8매(본문6, 참고2)	
담당부서	광역환승 시설과	담당자	• 과장 이경재, 사무관 양익준, 사무관 장상준 • ☎ (044) 201-5136, 5134	
	수도권광역 급행철도팀		• 팀장 장창석, 사무관 배상철, 사무관 박정란 • ☎ (044) 201-3981, 3983	
보 도 일 시		2020년 11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(GTX)시대 대표 랜드마크(상징건물)될 환승센터 10곳 선정

- 시범사업 공모결과 수원역·양재역 등 우수 역사 발표 -

- 3분 이내의 획기적인 환승체계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(이하 GTX) 10개 역사의 청사진이 마련됐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, 이하 대광위)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‘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’를 진행*한 결과, 현장실사·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 - * (대상역사) GTX 30개 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‘GTX 환승 triangle(서울역, 삼성역, 청량리역)’을 제외한 27개 역사
 - 이 중 수원역, 양재역 2곳이 최우수역사로, 부평역, 용인역, 운정역,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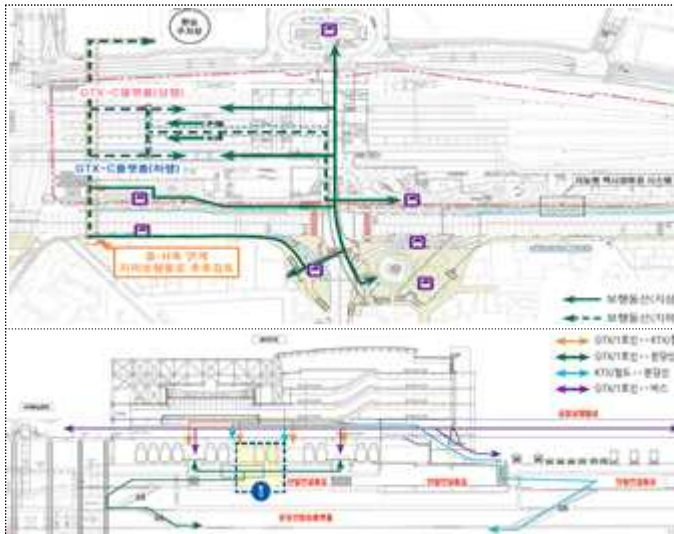
<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 결과> *가나다 순

구 분	역사명(GTX 노선)
최우수(2개)	수원역(C), 양재역(C)
우 수(4개)	부평역(B), 용인역(A), 운정역(A), 인천시청역(B)
입 선(4개)	동탄역(A), 부천종합운동장역(B), 의정부역(C), 인천대입구역(B)

- 이번 공모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해 환승동선 단축, 출입구 및 대합실 위치 변경 등 환승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이 불가능 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,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·버스 간 환승 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,
- 2회에 걸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의 구상안을 개선 했으며,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승체계와 디자인을 제안한 10개 역사를 최종 선정했다.
-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[최우수] 수원역

- 수원역은 GTX-C, 경부선(KTX), 1호선, 분당선과 102개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경기 남부의 거점역으로, 수원시는 연결통로 개설 및 확장을 통해 GTX와의 환승동선 및 혼잡도를 개선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.
- 또한, 동측 광장에 산재돼 있는 버스정류장을 역사 전면에 재배치해 철도와 버스와의 환승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,
 - 섬처럼 위치해 활용도가 낮았던 동측 광장을 재생해 보행자 중심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했다.



환승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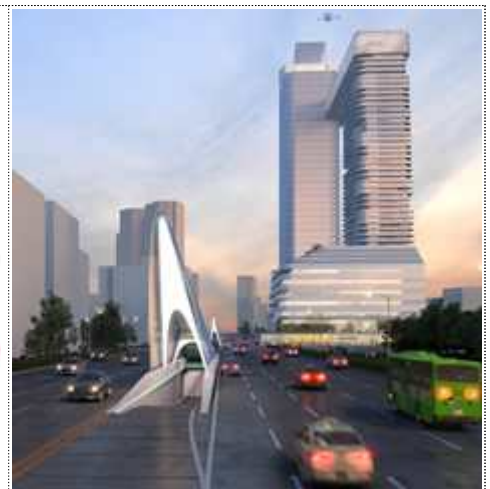
조감도

2 [최우수] 양재역

- 양재역은 GTX-C, 3호선, 신분당선과 107개 버스노선(광역버스 69개 노선)이 교차하는 대규모 환승역으로, 서초구는 GTX를 중심으로 기존 철도 및 버스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상했다.
- 특히, 서초IC와 인접(약 500m)한 위치적 특성을 활용해 남부순환로 지하에 회차가 가능한 버스환승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,
- 서초구 복합청사 사업(‘20.7월 예타 통과)과 연계해 공공청사와 환승센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통합구상안을 제시했다.



환승체계



조감도

3 [우수] 부평역

- 매일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부평역은 경인선과 인천1호선, 126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인천의 대표역사로, 부평구는 철도·버스의 one-stop 환승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.
- 인근에 산발적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을 역사 앞 광장에 집결하고, GTX 대합실을 경인선·1호선과 통합하여 계획함으로써 환승동선을 전면 개편하였다.
- 또한, 보행환경이 열악했던 광장은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부평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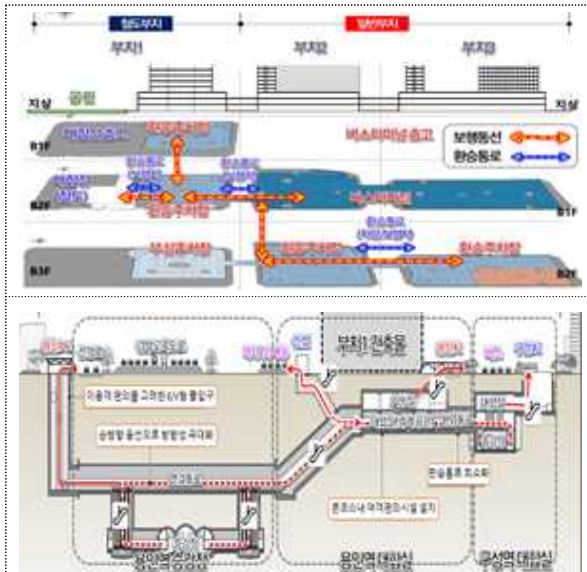
환승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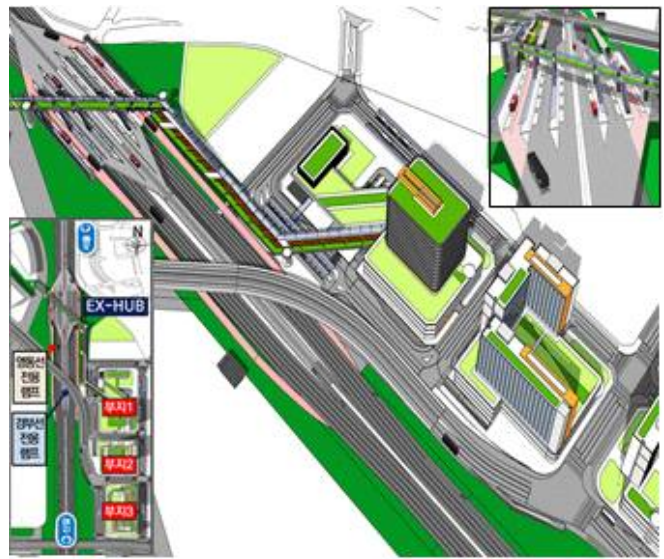
조감도

4 [우수] 용인역

- 용인역은 분당선과 교차하고, GTX 역사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(경부·영동)와 인접한 곳으로, 용인시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특색 있는 구상안을 제안했다.
- 고속도로 상부의 간이 정류장을 통해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이용객이 용인역에서 GTX로 환승할 수 있도록 했고, 버스터미널도 계획하여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완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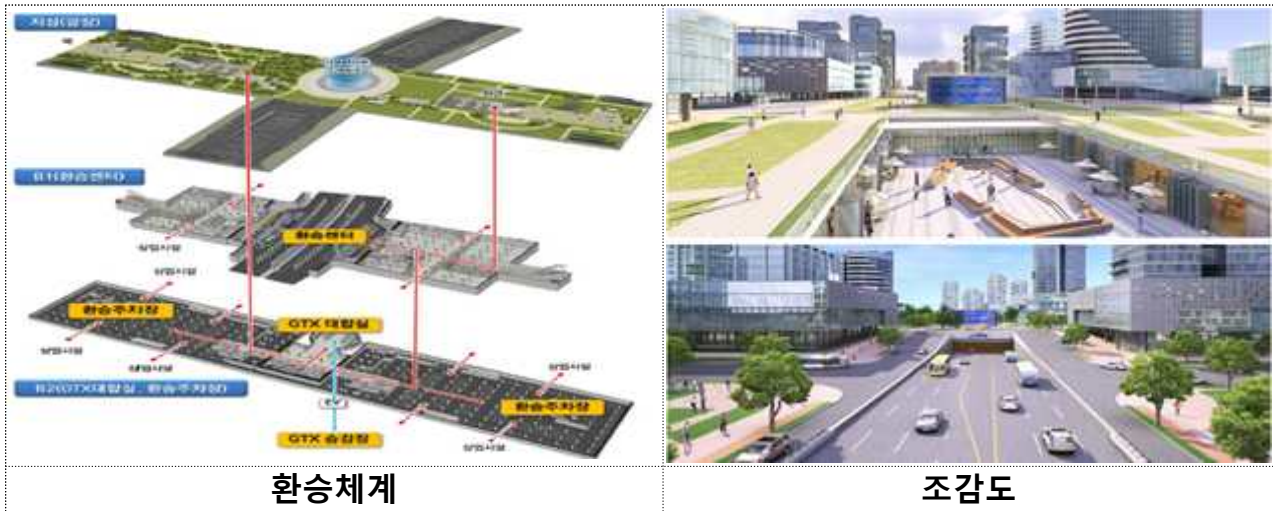
환승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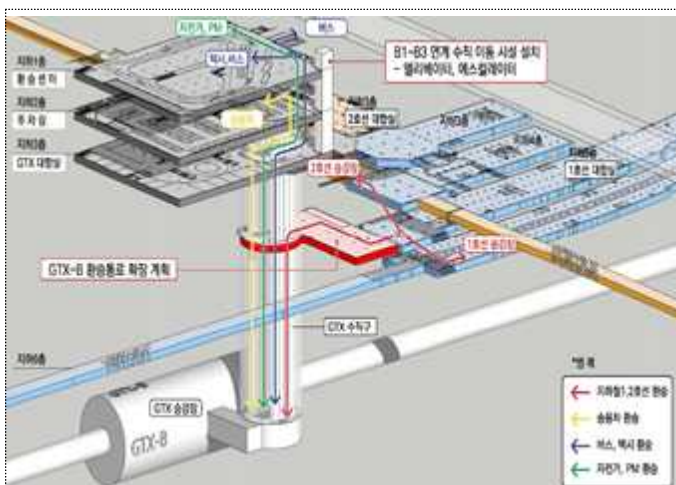
조감도

5 [우수] 운정역

- 운정역은 운정·교하지구 등 배후인구 24만 명이 예상되는 기·종점역으로, 파주시는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, 인접지역이 미개발 상태인 점을 활용한 블록 단위의 역세권 통합개발 구상안을 제안하였다.
- 지하1층에 버스환승센터를 계획해 GTX로의 수직동선을 최적화했고, 지하2층에는 대규모 환승주차장과 GTX 대합실을 구상함으로써 환승편의를 극대화했다.
- 아울러, 역사인근에는 상업·업무시설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상 녹지광장을 배치할 예정이다.



6 [우수] 인천시청역



☐ 대광위는 선정된 사업들을 「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(‘21~’25)」 등

관련 중장기계획과 GTX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(RFP)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하고,

-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구상비(역사별 1.5~2억원) 및 교통·건축·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‘총괄계획단’의 지원을 통해, 고품격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“이번 공모와 선정과정은 철도사업과 환승센터 사업의 경계를 허물고,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최적의 안을 구상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”고 말하고,

- “선정된 사업들을 GTX 개통과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GTX의 빠른 이동서비스와 동시에, 타 교통수단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면서,

- “선정되지 않은 역사들에 대해서도 환승센터 구상안을 더 발전시켜, 많은 GTX 역사들이 아름답고 편리한 환승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 양익준 사무관(☎ 044-201-513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우수역사 외 입선작(4개 역사) 주요내용

□ 동탄역

- 버스환승센터를 지하 3층에 배치하여 GTX 및 SRT와 지하 중심의 연계를 강화하고, 지상 트램과 수직 환승 구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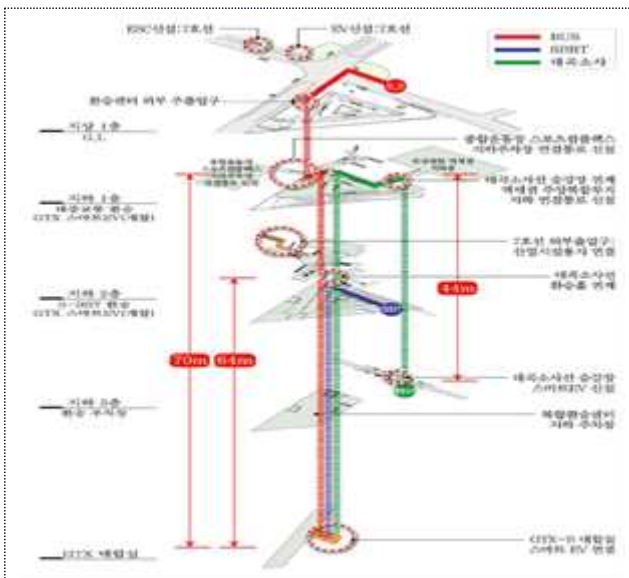
환승체계



조감도

□ 부천종합운동장역

- 환승센터를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을 도심 속 공원으로 계획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랜드마크로 건설



환승체계



조감도

□ 의정부역

- 의정부역 동측의 시유지를 활용한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GTX와 버스를 연계하고, 기존 1호선·경전철과의 보행동선 정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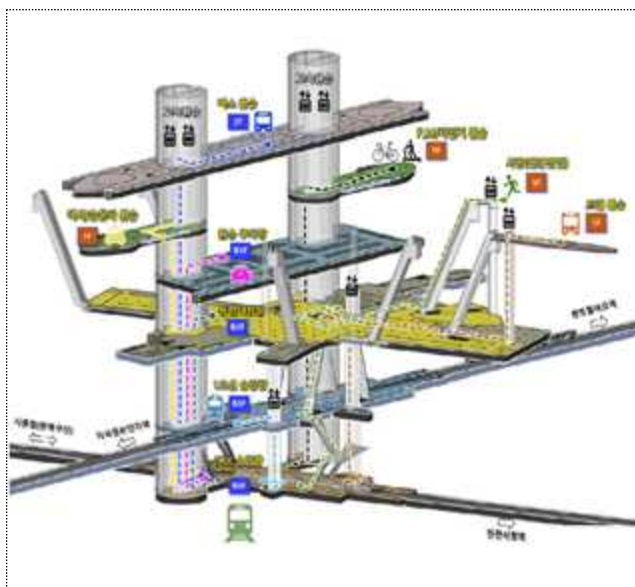
환승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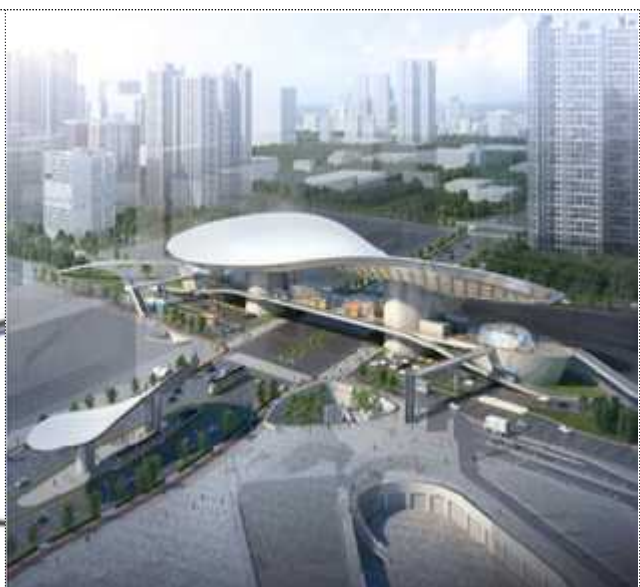
조감도

□ 인천대입구역

- 버스승강장 등 모든 환승시설을 동일한 위치에 입체적으로 수직 배치하여 고속 환승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 구상



환승체계



조감도